



플무원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 가보니
“비건 김치, 도전”
L1



종근당, 노바티스에
심혈관치료제 기술수출
1.6조 ‘대박’
L2



아이부터 어른까지 맞춤형 지원... “사회공헌 지속 추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하이투자증권

분기별로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
계절, 명절 등 고려 다양한 활동
홍원식 사장 “나눔의 의미 전파”

하이투자증권은 분기별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섬세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계절이 돌아올 때면 날씨로 인한 고충을 겪지 않도록 고려하고, 명절·창립일과 같은 기념일에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은 “하이투자증권은 ESG 경영의 실천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선물... 하이투자증권이 챙겨드립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연초 영등포사회복지협의회에 설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DGB 온기 가득 설명절 떡국떡 나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매년 DGB사회공헌재단이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따뜻한 명절을 기원하고자 마련하는 시간이다.

당시 하이투자증권은 DGB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준비한 후원금 1000만원으로 떡국떡, 곰탕, 라면, 고추장, 햇반 등으로 구성된 설 선물꾸러미를 300개를 준비해 영등포 사랑나눔 푸드뱅크에 전달했다. 푸드뱅크란 FOOD와 BANK의 합성어로 식품 나눔 제도 중 하나이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은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의 손길을 보낼 수 있도록 처음으로 푸드뱅크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마련했다”며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석에도 명절을 맞이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지원했다. 추석 기념으로 열린 DGB사회공헌재단의 ‘DGB 행복 Dream Day(드림데이)’에 참여했으며,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 등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9월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과일과 사골 우거지국 등 6종의 물품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세트와 쌀, 포기김 등(15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물품은 영등포구 관내 저소득 장애 가정과 유관기관 이용 가정 등에 전달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최종환 서울 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맨좌측)과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맨우측)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명선 서울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장과 성흥기 하이투자증권 경영문화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활동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연령·계층 등 사회공헌 활동 시야 넓혀

하이투자증권은 명절에는 소외계층과 장애가정을 챙겼다면, 기념일에는 소아암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로 사회공헌 활동 시야를 넓히려고 노력했다. 가정의 달이었던 5월에는 소아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한

‘DGB 행복드림데이’ 등 참여 창립 34주년 기념 쌀 330kg 기부 “소외되는 이웃 없도록 노력할 것”

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5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집단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후원했으며,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를 위해 하이투자증권은 1250만원의 후원 기금을 전달했다.

슬기로운 집콕생활은 DGB사회공헌재단의 행복 Dream Day(드림데이) 참여 일환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맡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센터를 활용해 총 3회

차의(회차별 30명씩, 총 참여 인원 90명) ZOOM(Zoom)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각 회차별 총 4회의 미술, 방송 댄스, 과학 등이 마련됐으며,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 난치질환 환자가 다양한 활동의 참여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혹서기였던 7월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DGB사회공헌재단의 ‘DGB 블루윈드(Blue Wind)’에 참여했다. DGB 블루윈드는 DGB사회공헌재단이 무더위 극복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하이투자증권은 김옥 서울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 여름 이불, 해충제, 사골곰탕 등 8여 가지 물품으로 구성된 ‘폭염극복 KIT’ 80개(500만 원 상당)를 준비해 서울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마포구 관내 남성 독거, 거동 불편 및 주거 취약 어르신들에게 전해졌다.

홍 사장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일회성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지속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며 “폭염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진행할 것

지난 3일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창립 34주년을 기념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등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온열 찜질기와 겨울이불 세트(500만 원 상당)를 준비해 서울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며 DGB금융그룹 계열사에서 받은 축하 쌀 330kg도 함께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금천구 관내 저소득 및 정부양곡수혜 대상 가정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성흥기 하이투자증권 실장은 “창립 34주년을 맞아 추운 겨울을 앞두고 저소득 가정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의 혜택이 여러 곳에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베이스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하성, MLB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 수상...한국인 최초 /사진 뉴시스
▲ NBA 클리블랜드, 커리 앞세운 골든스테이트 연승 저지

▲ ‘황의조 풀타임’ 노리치, 퇴장으로 10명 뺀 블랙번에 1-3 완패
▲ U-17 월드컵 나서는 변성환호,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국



▲ 손흥민·이강인 등 11월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명단 발표
▲ 조코비치, 사상 첫 마스터스 테니스 통산 40회 우승 /사진 뉴시스